



질문의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1896년 찰스 먼로 셸던(Charles Monroe Sheldon) 목사가 쓴 소설 『In His Steps(그의 발자취에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바로 "What Would Jesus Do?"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말 미국의 한 가상의 철도도시 '레이먼드'입니다. 이곳에서 헨리 맥스웰(Henry Maxwell) 목사는 우연히 한 실직한 인쇄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실직 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냉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맥스웰 목사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쇄공이 맥스웰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의 의미대로 정말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말을 남긴 그는 결국 쓰러졌고,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는 교인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리든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행동해 봅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참한 교인들은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 신문사의 편집장은 정직한 보도를 위해 기사 편집 방향을 바꾸고, 부도덕한 광고를 거절합니다. 백화점 사장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유한 여성 교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철도 공장의 소장은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도시를 넘어, 다른 지역과 심지어 시카고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야 하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와 같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도전과 고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상황별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소설이 아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뜻과 맞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타협하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삶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조차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말씀의 완벽한 실행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용서를 해 줘야 돼, 말아야 돼?"와 같은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된 질문이 아닙니다. 또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선교사로 헌신자와 같은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일상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발자취를 찾아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길에서 노숙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관점과 사랑을 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알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율법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셨고(막 3:1-6),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며 원수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요 13:1-5).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 공의와 순종의 삶을 사셨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로 아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답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더욱 깊이 배우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의 구성 및 프로그램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배와 공과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배우며,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상과 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세대가 더욱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21일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볼 수 있도록 실천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주제활동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코너 학습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앙을 단순한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기준을 세우도록 돕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완벽한 신앙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태도와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와 사역자인 우리도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 봐 망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벧전 2:21)."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질문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